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배 포 일	2019. 9. 26. / (총 5매)	담당부서	장애인정책과
과 장	권 병 기	전 화	044-202-3280
담 당 자	이 지 연		044-202-3285

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사업 공모, 전주시와 춘천시로 선정

- 장애아동에게 질 높은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기대 -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2019년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(7.22~8.30, 40일간)한 결과 전주시(전북권)와 춘천시(강원권)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.
-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재활치료서비스를 거주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·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.
 - 거주 지역 내 소아재활의료기관이 없어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이른바 ‘재활난민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.
 -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는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,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.
 - 또한, 회복 후 일상생활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적응 프로그램, 부모·형제교육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전라북도는 전주시 예수병원(완산구 서원로) 인접 부지(약 2,221m²)를 마련하여, 낮 병동 21병상 규모로 어린이재활센터를 건립하고(‘21년 개원 예정), 운영은 예수병원에 위탁할 계획이다.

- 강원도는 춘천시 강원도재활병원(충열로) 내부 부지(약 2,158m²)를 마련하여, 낮 병동 20병상 규모로 어린이재활센터를 건립하고('21년 개원 예정), 운영은 강원도재활병원에 위탁할 계획이다.
- 한편,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충남권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시작으로 올해 전북권·강원권 어린이재활센터를 설립, 향후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2개소, 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를 추가 건립하여 의료기관 총 9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.
- 재활의료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경남권, 전남권, 충남권(대전광역시 충남대 병원, 2018년 선정)에는 입원을 포함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을 각 1개소씩 설립할 계획이다.
 - 환자와 기존 재활의료기관이 적고, 지리적으로 지역내 이동이 어려운 강원권, 경북권, 전북권, 충북권에는 외래, 낮 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센터를 권역별로 1~2개소씩 설립할 예정이다.
 - 환자와 재활의료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, 적은 환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많은 제주권은 기존의 우수한 병원을 공공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한다.
- 보건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은 “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양질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전했다.
- 또한 “건립비 뿐 아니라 어린이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소아재활 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.”라고 밝혔다.

< 붙임 >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공모 개요



붙임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공모 개요

□ 배경 및 목적

-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아동가족의 의료수요에 부응
- 장애아동의 특성상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동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급 필요

□ 법적 근거

-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8조(의료와 재활치료)
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6조(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)

□ 사업 추진 방향

-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
 - 환자수가 많고, 권역 내 치료 비율이 높은 경우 접근성 좋은 중심지에 건립하여 소아 재활 거점 기능 수행
 - 경남권(경상남도, 부산시, 울산시), 충남권(충청남도, 대전시), 전남권(전라남도, 광주시)에 각 1개소씩 총 3개소
-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
 - 환자수, 기존 전문 기관수가 모두 적고, 지리적으로 지역 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외래 중심의 치료센터 건립
 - 강원권(강원도, 2개소), 경북권(경상북도·대구시, 2개소), 충북권(충청북도, 1개소), 전북권(전라북도, 1개소)에 각 1~2개씩 총 6개소

○ 기존 병원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

- 환자수 및 전문 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양호한 경우, 기존의 우수한 소아 재활 전문 병원을 지정
- 수도권, 제주권

□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기능

○ 의료

- (재활의료) 재활전문의와 치료팀의 다학제적 평가 및 전문 재활치료 프로그램 시행, 지역사회 재활의료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의뢰-되의뢰 등
- (의지보조기) 의지보조기 상담·처방·검수
- (공공사업) 지역 내 공공소아재활사업 개발·보급, 지역 내 통계 생성 관리

○ 돌봄 및 상담

- (생애주기별 서비스) 초기진단 시 부모교육, 입학 전 적응 프로그램, 청소년기 외래 유지기 재활치료, 각 생애주기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활동과 교육취업기관 연계
- (사례관리) 보육·교육, 복지제도, 지역자원 등의 정보 제공 및 연계
- (가족지원) 중증 장애아동 단기돌봄(short stay) 서비스, 부모교육·자조그룹 등 부모 지원프로그램 등 운영

○ 교육 및 체육

- (교육연계) 특수학교와 연계·협력을 통한 교육지원서비스
- (재활체육) 지역사회, 장애인 체육관련 지역사회 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

□ 공모 개요

- (공모기간) 2019. 7. 22(금) ~ 8. 30(월) (40일간)
- (지원사항)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건축비, 장비비 등 건립비
 - * 건축비에는 설계비, 감리비 등 부대경비 포함(토지매입비는 제외)
 - 1개소 72억 원(국비 50% : 지방비 50%) : 2개년에 걸쳐 지원
 - *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1개소 156억 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, 3개년에 걸쳐 지원
- (신청대상) 전북권, 강원권, 경북권(대구, 경북), 충북권 4개 권역 5개 시도*
 - * 미충족 의료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센터 설립이 적합한 권역 내 속한 시·도

□ 추진 일정

-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: 9.17(화)
- 사업수행기관 선정 통보 및 발표: 9.26(목)
- 사업지침 마련 및 배포: 10월초